

TIPLONews 한국어본

2026 년 9 월호(K325)

이달의 주제

K260805X2

K260805X3

01 한국의 클래식 게임인 「스톤에이지」 소스 코드를 도용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엔지니어를 기소

한국의 클래식 게임 「스톤에이지」가 라이(賴) 성을 가진 엔지니어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든 「드림스톤에이지」¹⁾라는 개인 서버를 통해 약 210 만 2 천 대만 달러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넷마블의 소송 제기에 따라 대만 스린(士林) 지방검찰은 라이(賴) 성의 남자와 차이(蔡)성의 여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 추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라이(賴)는 이전에 「봉황석기시대」²⁾의 개인 서버 구축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유지 관리 및 코드 작성을 담당했었다. 관련 사건은 스린(士林) 지방 검찰에서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스린(士林) 지방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피의자 라이(賴)는 2024 년 6 월 이전에 「봉황석기시대」에서 사용되는 「스톤 에이지」 프로그램 코드를 입수하여 「드림 스톤 에이지」로 재구성 및 수정하고, 9 월부터 개인 서버를 구축, 로그인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운로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차이(蔡)는 이와 관련한 아트 디자인, 홍보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다.

검찰은 피의자 라이(賴)가 LINE 은행의 「꿈의 계좌계정」을 이용해 플레이어들에게 자신의 중국신탁³⁾ 및 합작금고⁴⁾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결제를 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025 년 3 월부터는 Neweb⁵⁾이 설립한 「KK 프로그래밍」이라는 상점을 통해, 「격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게임 충전금을 받아갔다. 거래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의자 라이(賴)는 중국신탁 계좌로 약 56 만 1 천 대만달러, 합작금고 계좌로 약 105 만 1 천 대만달러, 그리고 Neweb 을 통해 약 49 만 대만달러를

수령하여 총 약 210 만 2 천 대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라이(賴)가 프로그램, 서버, 웹사이트, 광고 및 결제 관리를 담당했고, 피의자 차이(蔡)는 디자인, 소셜 미디어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무단 복제, 공중 전송 및 배포, 상표법등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210 만 2 천 대만 달러를 몰수 또는 추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2026.08)

역주:

- 1) 원문은「夢想石器」인데 이를 「드림스톤에이지」로 의역했다.
- 2) 원문의「鳳凰石器」를 「봉황석기시대」로 의역했다.
- 3) 원문은 中國信託으로 중국신탁이라고 의역했다.
- 4) 원문은 合作金庫으로 합작금고로 의역했다.
- 5) 중국어명 藍新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Neweb Technologies Co., Ltd (Neweb)

Attorneys-at-Law

K260904Y1

K260904Z1

02 특허 출원 절차가 간소화를 위해 대만과 미국은 전자 교환 시스템을 구축,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을 제고

대만 경제부 산하 지혜재산국¹⁾은 9 월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년 11 월 22 일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와 주대만 미국대표부가 체결한 「대만-미국 특허정보 안전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지혜재산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서비스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미국 특허 우선권 전자문서 교환(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서비스가 2026 년 9 월 4 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대만 특허심사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예정이다.

지혜재산국은 다국적 기업의 특허 출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의 특허 당국들이 협력 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 년부터 대만은 이미 계속적으로 일본, 한국과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해 왔다. 이러한 전자적 문서 교환은, 양국 특허 출원인이 국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경 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여,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특허 심사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대만 지혜재산국은 추가 설명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대만인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 왔으며, 매년 약 2 만 건의 출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인 출원인은 매년 약 7 천 건의 특허를 대만에 출원하여, 외국인의 대만 출원 건수 2 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과 미국 간 특허 출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대만과 각국의 주요 특허기관 간 심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만과 미국은 2026 년 9 월 4 일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교환 협력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 향후 출원인이 전자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대만과 미국의 두 특허 관련 기관은 직접 전자식으로 문서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대만인의 미국 특허 출원을 더욱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출원인의 대만 특허 출원에도 도움을 주어, 대만과 미국 출원인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운영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대만 지혜재산국은 「대만-미국 특허 우선권 증명 서류 전자 교환의 요점」 및 「대만-미국 특허 우선권 전자문서 교환 관련 질의응답」을 게시했다. 출원인은 대만 지혜재산국 웹사이트의 「우선권 증명 전자문서 교환」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2026.09)

역주:

- 1) 대만의 경제부 智慧財產局(지혜재산국, TIPO)은 한국의 특허청(KIPO)에 상응한다.



03 지혜재산국은 지역 산업의 성장세를 강조하는 친환경 상표 목록을 발표

경제부 산하 지혜재산국 ¹⁾은 2026 년 8 월 5 일, 「대만의 녹색 상표 지난 10 년간 종합 분석 – 넷제로 ²⁾ 시대의 보이지 않는 해자 구축」³⁾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6 년부터 2025 년까지 10 년간의 상표 출원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혜재산국은 소위 「녹색 상표」란 니스 분류에 따라 친환경적인 특성을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시하는 상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U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녹색 상표를 「에너지 제품», 「운송», 「에너지 절약», 「재사용/재활용», 「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농업», 「환경 인식», 「기후 변화」라는 9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였다.

지난 10 년간 대만의 녹색 상표 출원 건수는 12 만 6 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상표 출원 건수의 14.10%에 해당한다. 즉, 출원 건수 7 건 중 1 건은 녹색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제품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32.34%), 「오염 방지」(25.69%), 「에너지 제품」(19.79%)이 대만 녹색 경제를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전체 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9 대 카테고리 중 「기후 변화」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약 5.4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4 년과 2025 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2 년사이에 150%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향후 10 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혜재산국은 출원인 국적별로, 대만 기업이 1 위를 차지했고 점유비율은 76%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산업이 초기 「기술 수입」 단계에서 「완전한 자립」 단계로 전환하여, 친환경 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별 출원인 순위에서는 통일기업 ⁴⁾이 2,274 건의 친환경 상표 출원으로 1 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대만내 소매업체들도 지속가능성 개념을 일상 소비에 스며들게하는 심층적인 방어 전략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애플(811 개 품목)과 닌텐도(263 개 품목)는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에 있어 정밀한 타격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KYMCO⁵⁾은 「교통」 부문에서

1 위를 유지하며 대만 오토바이 브랜드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넷제로 경쟁에 직면하여 지혜재산국은 기업들이 제품 라인의 친환경 요소를 가능한 한 빨리 점검 및 파악하고, 탄소 감축 기술과 친환경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상표화」하며, 글로벌 넷제로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과 제품의 두 가지 방향의 친환경 해자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2026.08)

역주:

- 1) 대만의 경제부 智慧財產局(지혜재산국, TIPO)은 한국의 특허청(KIPO)에 상응한다.
- 2) 넷제로(Net-Zero, 탄소순배출량 제로)는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제거하는 양을 상쇄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 만드는 상태를 뜻한다.
- 3) 원문의「我國綠商標十年全解析-打造淨零時代的隱形護城河」를 의역하였다.
- 4) 중국어명 統一企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Uni-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통일기업)
- 5) 중국어명 光陽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Kwang Yang Motor Co., Ltd. (KYMCO)

K260811Y3

04 75 만 건의 음악을 손쉽게 조회 – 지혜재산국, 작사 작곡 권리 조회 및 대조 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디지털 음악 트렌드에 발맞춰, 대만 경제부 산하 지혜재산국¹⁾은 2026 년 8 월 11 일에 발표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음악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하며, 이를 통해 대만 음악 저작권 정보의 투명성과 라이선스 부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에게 음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라디오 방송국이나 방송사 등 대규모 사용자에게는 사용 목록 관리 및 비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악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은 국제 표준 녹음 코드(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약칭 ISRC) 데이터베이스와 대만 대중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현재까지 75 만 건 이상의 음원 및 앨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는 대만 내 다양한 저작권 관리 단체가 관리하는 노래 및 앨범 데이터를 포함한다. 웹 버전 외에도, 모바일 버전 또한 제공한다. 사용자는 곡 제목과 가수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해당 곡을 관리하는 저작권 관리 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기존처럼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지혜재산국은, 해당 시스템이 다량의 음악 이용 유형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 목록 일괄 업로드, 자동화 관리, 이용 패턴 분석 등 고급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능은 방송사들이 과거 음악 저작권 정보 및 저작권 관리 기관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의 어려움등 업계가 겪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대만 전역의 84 개 TV 및 라디오 방송국이 시스템 사용에 등록했다. 2026 년 1 월부터 7 월까지 이들 방송국의 총 사용 건수는 1 만 4 천 건을 넘었고, 월평균 플랫폼 방문자수는 3 만 건, 업로드된 악보 선곡 대조 데이터는 누적 123 만 건에 이르러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혜재산국은 앞으로도 음원 정보 통합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만 음악 산업과 저작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라이선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음악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설명회 회차를 확인하려면 지혜재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

역주:

- 1) 대만의 경제부 智慧財產局(지혜재산국, TIPO)은 한국의 특허청(KIPO)에 상응한다.



K260807Y5

K260806Y5

05 이차원 반도체 계면 병목 현상 돌파, 대만연구팀이 포스트 실리콘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열다

대만 국과회¹⁾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휴대전화, 컴퓨터, 심지어 미래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기까지 모두 더 빠른 연산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량을 갖춘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기술은 점차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데, 원자 두께에 불과한 「2 차원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을 이어가고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회의 「차세대 미래지향적 반도체 기술 프로젝트」²⁾와 「대만 크리스탈 혁신: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부품 통합을 위한 핵심 기술」³⁾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국립 양명교대⁴⁾ 전자물리학과 및 중앙연구원⁵⁾ 응용과학 연구센터의 장원하오(張文豪) 교수 연구팀은, TSMC 의 Iuliana Radu 박사 연구팀, 그리고 국립 양명교대 반도체공학과 리종언(李宗恩) 교수와 함께 2 차원 반도체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계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고성능 단층 이황화몰리브덴(MoS₂) 탑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획기적인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에 게재되었다.

2 차원 반도체는 매우 얇다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칩 내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초박형 「게이트 유전체 층」을 표면에 증착해야 한다. 이는 마치 초박형 종이 위에 필름을 덧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종이 표면이 쉽게 손상되어 전자 이동이 방해받고(전자 산란) 소자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초박형 구조와 고속 전자 전송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국제 반도체 산업계에 있어 항상 어려운 과제였다. 대만 산학 합동 연구팀의 혁신은, 새로운 소재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에피택시 계면 엔지니어링」(epitaxial interface engineering)을 이용하여 이 「필름」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

연구팀은 초고진공 기술을 이용하여, 우선 MoS₂ 단층 표면에 초박형 알루미늄 층을 정밀하게 증착한 다음, 이를 산화시켜 두께가 약 0.42 나노미터에 불과한 산화알루미늄 층을 형성했다. 이 층은 후속 물질 성장을 위한 고품질 기판 역할을 했다. 원자층 두께에 불과한 이 완벽한 인터페이스는 2 차원 반도체와 유전체 층 사이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자 전송 저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초박형」과 「전도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성공적으로 모두 충족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팀은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는데, 극히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도 성능을 보였다. 동시에 누설 전류가 매우 낮고 작동 안정성이 뛰어난 것을 입증했다. 이는 2 차원 반도체 소자가 실제 응용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었다.

장원hao(張文豪) 교수는 2 차원 반도체 분야의 미래 경쟁은 소재가 아닌 계면 엔지니어링에서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의 가장 큰 가치는, 다양한 2 차원 반도체 소재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더욱 빠르면서도, 저전력인 전자 부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존 반도체 공정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포스트 실리콘 시대」 칩 기술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다. (2026.08)

역주:

- 1) 중국어 정식명칭은 국가과학 및 기술위원회(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 영어명은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국과회)
- 2) 원문「A 世代前瞻半導體技術專案計畫」을 의역했다.
- 3) 원문「晶創臺灣：次世代半導體材料與元件整合關鍵技術」을 의역했다.
- 4) 중국어명은 國立陽明交通大學, 영어명 National Yang Ming Chiao Tung University (양명교대)
- 5) 중국어명 中央研究院, 영어명 Academia Sinica (중앙연구원)